

가온 누리

vol. 41
2018. 01



Editor's Letter

가끔 드라마 속 어머니들을 보면 무언가에 충격을 받고
몸 저 누울 때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누워있곤 하죠.
저렇게 머리를 묶어 두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모르는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픈 곳의 혈자리를 떠나 끈으로 압박한 후 띠를
풀면 일시적으로 혈행을 원활하게 해 아픈 곳의 통증을 덜어주는
원리를 이용한 선조들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맞이라는 것은 신년의 기쁨보다 지끈지끈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부담일 때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주변 사람들의 압박 등으로 새해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새해가 주는 압박 덕분에 한 해를
원활히 보낼 수 있는 지압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새해가 주는 즐거운 압박을 가슴에 새기고 힘들 때는
함께 혈자리를 꼭꼭 눌러주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가온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온 누리

vol. 41
2018. 01



CONTENTS

Opening KAON NURI

- 04 CEO LETTER
- 08 CELEBRATION
- 10 KAON NEWS REVIEW

KAON Zoom In

- 14 EXPERT COLUMN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한수연 전문 기자
- 16 BUSINESS COLUMN
- 18 KAON REPORT 마케팅팀 안은경 매니저

KAON Culture

- 22 KAON CAMPAIGN 인사Part 천지현 매니저
- 24 KAON CSR 인사Part 천지현 매니저
- 26 가온 해외특파원 소식 America 3 Part 채혜원 매니저
- 28 KAON 이모저모
- 30 PEER RECOMMENDATION RELAY 칭찬이 메아리 치는 가온

KAON Endorphin

- 32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 34 KAON RESEARCH 가온인의 설 명절, 행복하십니까?
- 36 TO MY BELOVED FAMILY 비서part 장지원 매니저
- 38 가온미학 서울 들여다보기
- 40 TREND REVIEW 올로에서 짠테크까지
- 42 나만의 YOLO 나의 YOLO, 야구와 함께 스트레스도 날려요 SQA Part 김효현 매니저
- 44 가온다방 QA Part 김정진 매니저
- 46 KAON RECIPE 영업지원 Part 문윤서 매니저

KAON Nuri 2018.01

발행처 가온미디어 발행일 2018년 2월 5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 빌딩

전화번호 031-724-8500(대표)

디자인 편집디자인회사 귀기울 Tel.02-3452-0524

인쇄소 솔텍

www.kaonmedia.co.kr

여러분이 가온의 경쟁력입니다
You Are KAON's Competitive Power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알리는 황금빛 태양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국내외 임직원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018, the year of the dog, has dawned. In this hopeful New Year, I would like to wish happiness and good health to all of our KAON employees, both at home and abroad.

지난 2017년은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경쟁사들은 대형화 되고, 시장 환경은 격변하며,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익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사적인 선제 대응으로 많은 글로벌 동종업계의 실적 부진 속 IT업체로는 드물게 당사는 5년 연속 최대 이익과 매출을 일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쉽지 않았던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남미를 비롯한 지속적인 시장 개혁과 시장 선도적인 인공지능 제품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선전, 그리고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원가혁신 수행 등 임직원 여러분들의 발 빠른 대응과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 has been a very eventful year. Our competitors have grown larger in scale, and the market environment has undergone rapid change. In addition, as the price of memory rose, we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in making profits. However, thanks to a preemptive, company-wide response to these developments, KAON has been able to overcome the trend of stagnation in the global industry and recorded the largest sales and profits for the fifth year in a row, a rare accomplishment for an IT company. Although it was certainly a difficult challenge, we succeeded in maintaining growth thanks to the swift response and enthusiastic dedication of our employees, whose efforts included reforming global markets in places like Central and South America, as well as securing KAON's overwhelmingly excellent performance in the domestic market through our market-l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preemptive and continuous cost innovation.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appreciation once again to everyone at KAON for doing your utmost to further the company's growth and development.

2018년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칩셋 메이커의 영향력 확대, 메모리와 주요 부품 가격의 추가 상승으로 올해도 수익성 확보는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2018년 질적 성장 달성을 위한 비전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2018 will be a year that is more important for us than any other in the past. Securing profitability will again be our ultimate task this year, as Chipset maker's influence will expand and the prices of memory and key parts will additionally increase. In order to elbow through such difficulties and achieve qualitative growth, it will be necessary to turn crisis into opportunity through continued innovation and change and strategically approaching obstacles to our success. As such, I would like to stress my vision for accomplishing this in 2018.

첫째,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1회성 비즈니스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전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따라 영업뿐만 아니라 연구소 관계자는 핵심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여부를 확인하고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irst, we must strive to maintain sustainable businesses.

A one-off business cannot play a role in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a company. The key is to check the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and to organically evolve it, not only by performing business activities according to the changing market and customer needs, but also by analyzing and continuously checking the key causes behind these changes through the research center.

둘째, 지속 성장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8년동안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여러 번 부침도 있었지만 지난 2011년 이후로 안정적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로써 앞으로 회사의 성장 곡선이 하향하는 것을 선제 조치하고 지속 성장하는 회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개척과 철저한 현지화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접근과 타겟팅으로 확실한 키맨 관리, 예산 계획 등으로 확률 높은 비즈니스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반의 출전 준비를 끝낸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사업과 가온소프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가온 그룹으로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전사적 역량 집중을 당부합니다.

Second, we must endeavor to ensure KAON's sustainable growth.

I have experienced a number of ups and downs while managing the company over the past 18 years. However, since 2011, KAON has been drawing a stable growth curve. I,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ensure KAON's sustainable growth by taking preemptive actions to prevent our growth curve from shifting downward.

For this, it is most important to continuously promote market development and strict localization. Through more precise information access and targeting, we can ensure successful key man management and budget planning, and thus, highly profitable business undertakings.

I declare once again that KAONSOFT and our broadband network business, which has completed preparations for improving market competitiveness, are KAON's new growth engines. We must focus our full competencies on these two important axes so that they can fulfill their critical roles of improving the value of KAON Group and its status as a global enterprise.

셋째, 수익성 극대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수익성을 확보해 성장의 토대를 계속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극심한 메모리 및 각종 원자재 부품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가혁신 TF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 원가 절감 아이디어를 내어주고 실행해 가야 합니다.

Third, we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maximizing profitability.

To thrive in a competitive setting, we must continuously prepare a basis for growth by securing qualitative profitability in addition to quantitative growth. This year, we forecast a steeper increase than last year in the prices of memory and various raw materials and parts. To overcome difficulties such as these, I would like for all of us, including the members of the cost innovation TF, to come up with and implement creative ideas and plans for reducing expenses.

임직원 여러분!

올해도 시장의 파도는 더욱 거세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도전정신과 주인의식으로 최고의 경쟁력 있는 가온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This year, the waves in the market will be all the stronger and fiercer. Nevertheless, we must continue to move forward. We can do it! Let's make KAON a company with the highest competitive edge, and the spirit to take on new challenges and foster a sense of ownership.

Thank you. 🙏

2018년 새해

대표이사 임 화 섭

NEW YEAR'S DAY 2018

Lim Hwa-Seop, CEO and Founder of KAONMEDIA

기쁜일은 나뉘요, 가온인들!

새로 입사한 가온인들도, 결혼을 한 가온인들도 모두 새로 시작입니다.
가온과 함께 새 시작을 하게 되니 더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2018년에는 좋은 일이 더 가득하길 바랍니다.

입사했어요

- 7월 권성수 QC Part 매니저, 채희중 솔루션팀 매니저, 송석규 아시아 2 Part 매니저, 이상덕 PM2팀 PM,
김도원 서유럽 Part 매니저, 박병인 제조기술팀 매니저, 여상용 PM 1팀 PM, 이호찬 플랫폼1팀 매니저,
이지희 플랫폼2팀 매니저, 채용병 CA Part 매니저, 김익현 네트워크 SW 1팀 매니저,
박상준 America 2 Part 매니저, 이강우 EMS팀 매니저
- 8월 김정우 원가기획팀 매니저, 여인규 America 1 Part 매니저, 김주성 기구2Part 매니저,
안태규 네트워크 검증팀 매니저
- 9월 박지현 영업지원 Part 매니저, 이윤철 북유럽 Part 매니저, 성지향 북유럽 Part 매니저,
서민경 스마트2팀 매니저, 채혜원 America 3 Part 매니저, 안형석 서유럽 Part 매니저,
전용환 서유럽 Part 매니저
- 10월 김주영 네트워크 SW 1팀 매니저, 정순철 제조기술팀 매니저, 김영훈 마케팅팀 매니저,
유현석 시스템2팀 매니저, 박희영 총무 Part 매니저
- 11월 김연호 플랫폼2팀 매니저, 서대욱 PM 2팀 PM, 김만중 사업1팀 매니저, 이윤섭 기구2Part 매니저,
김명규 솔루션팀 매니저
- 12월 신상민 기구1Part 파트장, 하인호 기구1Part 매니저, 염승훈 스마트3팀 매니저,
정재남 RF Part 매니저, 정경훈 사업2팀 매니저, 김상수 스마트3팀 매니저,
신범빈 아시아 1Part 매니저, 석수민 기구2Part 매니저,
정성진 기구1Part 매니저, 최민석 연구운영 Part 매니저

결혼했어요

- 2017. 08. 26 김희연 디자인팀 매니저
- 2017. 09. 09 이경일 가온소프트 국내영업팀 매니저
- 2017. 09. 16 송하룡 전산팀 매니저
- 2017. 11. 12 조인재 스마트4팀 매니저
- 2017. 11. 25 장지원 비서Part 매니저



9월

가온소프트, 'IBC 2017'서 현장업무관리 솔루션 'QuickOn™' 공개

KAONSOFT unveiled "QuickOn™,"
a field operation management solution, at "IBC 2017"



가온소프트는 가온미디어와 함께 국제방송기술 박람회 'IBC 2017'에 참가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을 위한 OPEX 솔루션인 'QuickOn' 솔루션을 성공리에 선보였습니다. QuickOn 솔루션은 모바일 현장관리(Field Service Management, FSM) 솔루션으로 방송 및 인터넷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QR 코드 및 바코드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앱을 제공하고, 손쉽게 고객센터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

체적인 고객관리 비용을 최소화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가온소프트는 약 30여 개국 50여 개 방송통신 사업자 및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데모 세션을 가졌으며, 솔루션에 대한 상담 요청이 계속 이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내 '친절한 가온인' 추천 캠페인 'Thank You Point' 시행

Started "Thank You Point," an internal campaign to commend
"friendly KAON employees"



가온미디어의 새로운 조직문화 캠페인 'Thank You Point'가 지난 9월 11일부로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Thank You Point'는 평소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거나 칭찬하고 싶은 동료들 직접 추천하는 캠페인으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 부서간, 직원간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내 문화를 조성하여 '소통하는 문화, 칭찬하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월 최대 5명의 동료에게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전하는 Thank You Card를 작성해 사옥 1층에 비치된 칭찬박스에 제출하면 월, 년 별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친절한 가온인'을 선발해 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온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동료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10월

가온미디어, 유럽시장에 가온 미들웨어(MW) 공급

KAONMEDIA supplied KAON Middleware (MW) to Europe

지난 10월 유럽의 대형 위성방송사업자가 가온의 미들웨어(MW)를 최종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온미디어는 처음으로 유럽시장에 Native 솔루션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가온의 미들웨어를 탑재한 셋톱박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가온미디어는 MW 솔루션 공급을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가온미디어의 솔루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월

가온미디어, 'KT 파트너 어워즈 2017' 기술분야서 대상 수상

KAONMEDIA was awarded the Grand prize at the "2017 KT Partner's Day" in the Technological Partners category



지난 11월 21일, KT에서 개최한 '2017년도 KT 파트너스 데이'의 '파트너 어워즈 2017'에서 가온미디어가 기술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KT 파트너스 데이'는 KT가 협력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KT는 이날 행사에서 협력사들과 함께 5G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기 위한 동방성장 전략 방향을 발표하고, 2017년에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린 협력사를 선정해 격려하는 '파트너 어워즈 2017'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온미디어는 AI 기술

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인공지능 셋톱박스 '기가지니' 개발을 주도하여 KT와 함께 성공적인 런칭을 이끌었으며, 국내 AI 시장을 선점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기술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가온미디어, 아동결연 후원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KAONMEDIA was awarded a letter of commendation from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or for meritorious services in supporting children

가온미디어는 지난 11월 11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주최로 열린 '제3회 경기나눔천사 페스티벌'에서 아동결연 후원 유공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번에 받은 경기도지사 표창은 아동결연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회사는 2009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센터 등에 후원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봉사활동 및 기타 후원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2월

가온미디어, 아프리카시장에 퀵온 솔루션 첫 공급

KAONMEDIA supplied the QuickOn™ solution for the first time to Africa

가온미디어가 아프리카 위성사업자에 가온소프트의 퀵온(QuickOn) 솔루션을 공급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IBC 전시회에서 퀵온 솔루션을 선보인 이후 처음입니다. 금번 계약은 방송사업자로부터 퀵온 솔루션 공급 계약을 수주함과 동시에 첫 번째 성과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이로써,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가 아닌 솔루션 공급을 위한 아프리카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 TTA 시험인증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 – 시청각장애 보조방송 수신기

Awarded the Excellence prize at the "2017 TTA Test Certification" for a broadcasting receiver designed for people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지난 12월 7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개최한 '2017 TTA 시험인증 대상' 시상식에서 가온미디어가 시청각장애보조 방송 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HDR 셋톱박스 'BKO-UH600'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TTA 시험 인증 대상은 TTA를 통해 시험인증을 받은 제품(811개) 중 우수제품(8개)을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BKO-UH600'는 TTA 인증기준이 정한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능에 대한 표준적합성 시험 55개(자막방송 47개, 화면해설방송 8개) 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 대기전력 저감이 우수하며, HDR 기술 기반 SK 브로드밴드 초고화질(UHD) 실시간 방송, 초고화질 주문형비디오(VOD),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번 수상을 통해 가온미디어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 받게 되어 의미가 뜻 깊습니다. 🌟

정리 : 기획 Part 김민규 매니저



한수연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전문 기자

당신을 위한 블록체인 가이드

Blockchain Guide for You

블록체인이 화두입니다. 블록체인을 둘러싼 말들이 넘쳐나고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투자 논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문득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잊는다는 뜻이죠. 지금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손가락은 '비트코인', 달은 '블록체인'이 될 것입니다.

Blockchains are now emerging as a new issue that has been generating a lot of talk. However, most of it is about investments in cryptocurrencies, represented by Bitcoins. People have less interest in blockchains themselves, which are the basis for Bitcoins. There is a four-character idiom, "Gyeon Ji Mang Wol (見指忘月)". It means that you do not see the moon, but only my finger pointing at it.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finger is Bitcoins, and the moon is blockchains.

달은 잊고 손가락에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달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은 일종의 '신뢰 프로토콜'입니다.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신뢰를 보증하죠.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서로의 신뢰를 보증할 완벽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항상 신뢰를 보증한 제3자가 필요했어요. 중간에 믿을 수 있는 존재를 세워두고 이를 이용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제3자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개 정부 혹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중앙집중형 기관이 맡았죠. 블록체인은 이 제3자의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때문에 개인 간(P2P) 거래가 가능합니다.

We should focus on the moon instead of the finger. With that in mind, what exactly are blockchains? Blockchains are a sort of a "trust protocol." They guarantee trust through their mechanisms. Before blockchains appeared, we had not been able to find the perfect way to guarantee trust in a deal or a contract. We always needed a third party to get that guarantee, an entity through which we could exchange reliable information. As the third party had to be able to be trusted by anyone, it was generally the government, or a centralized organization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Blockchains, however, eliminate the need for a third party. Therefore, we can make deals through peer-to-peer networks (P2P).

다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금융거래에 접목한 한 사례일 뿐, 그 자체는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가 필요한 정보 교환과 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분야에 접목 가능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Let's go back to Bitcoins. A Bitcoin is not a blockchain itself, but rather a case where a blockchain is applied to a financial transaction. Blockchain technology is applicable to all fields where information requires trust to be exchanged and transacted. Let's talk about a couple of examples.

블록체인을 미디어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시빌(Civil)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빌은 블록체인 기술로 위기에 빠진 저널리즘을 구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공식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기자와 독자가 P2P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광고주의 입김, 이익단체, 온갖 검열, 거대 기술 플랫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용이합니다.

For one, attempts to apply blockchains to media are increasing. Civil is one of them. Civil is a project to protect journalism from risks resulting from blockchain technology. It is about to be officially launched. Using blockchain technology, journalists and readers can meet in person via P2P networks. They can be free from the influence and censorship of advertisers, interest groups, and huge technology platfor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which cannot fake or falsify data, it is able to resolve fake news issues.

에너지 분야에 블록체인이 접목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각 가정의 태양광 에너지로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남은 전기는 이웃과 거래하는 에너지 P2P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다만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방법이 요원했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에너지고래, 호주의 파워렛저 등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hat if blockchains were applied to the energy industry? Each household could produce electricity using solar power and share the remaining energy with the rest of the neighborhood. It would be the rise of the energy P2P era. This system is called "energy prosumers." In fact, this idea is not new. We just needed the technology to realize this system, and with blockchain technology, that is finally possible. Blockchain startups such as EnergoLabs (China) and Power Ledger (Australia) are now trying to occupy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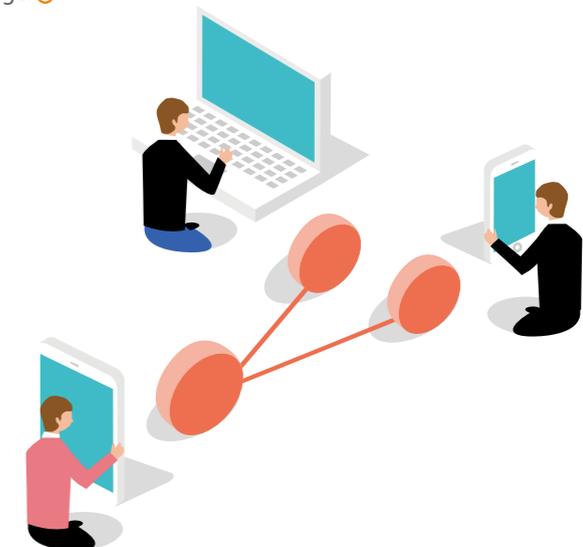
energy P2P platform.

블록체인 바람은 각 나라 정부에도 불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주주투표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가 기록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바이는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광, 다이아몬드 교역, 건강 기록 등 일곱개 서비스에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Blockchains are prevalent among the governments of nations as well. The Government of the Estonia uses the shareholder voting system based on blockchains. Since 2015, the United Kingdom has been considering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in order to manage national records transparently and accurately. The Government of Dubai formed the "Global Blockchain Council" and announced that blockchain programs would be applied to seven services, including tourism, diamond trading, health records, etc.

이같이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은 모든 분야로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한 블록체인, 이 신기술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어떻게 선도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Blockchain technology can be expanded to every field. In other words, we have a lot of opportunities for new businesses. Blockchains have just started to receive attention. Now we should ponder over how we can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new technology, how we can adapt to change, and how we can lead such change. ☺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챙기는 회의 노하우

알차고 현명한 회의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회사 생활을 하다보니 어떤 날은 “오늘 내가 일 하러 왔던가, 회의 하러 왔던가?”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나마 유쾌하고 유익한 회의 시간이었다면 일할 맛 나겠는데 지루하고 졸리고...졸리고...졸리는데... 회의 끝?! 이런 경우라면 그동안 당신은 가짜 회의에 참석했네요. 주어진 일만 하기에 하루가 바쁘다! 나의 시간은 아껴 쓰고, 회의는 좀 더 알차고 현명하게 참석하고 진행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1 일단 모여보자? No!

취업포탈 잡코리아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불필요한 회의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안건이 없거나 참석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회의는 흐지부지가 되고 말죠. 참석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회의일 때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한 취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인원만 모여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회의 주최자는 누가 그 회의에 필요한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면 좋겠죠.



2 시간과 안건을 명확히 한다

참석자가 정해지면 안건을 미리 전달합니다. 그래야 참석자들이 회의를 위해 준비를 할 수 있고, 회의가 딱 길로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죠. 회의 시간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매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 고지 된 회의 시간에 지각자를 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참석자가 발생하면 회의의 흐름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간을 준수해야겠지요. 회의 진행 시간도 미리 정해둡니다. '오늘의 안건은 한시간 내로 결정하겠다' 라고요. 참석자들에게 회의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 집중도를 한껏 올릴 수 있습니다.



3 기록은 발전의 힘!

참석자 중 한명이 회의록을 꼼꼼히 작성해 추후 돌려보면 회의에 있었던 이야기와 흐름, 안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실한 후속 조치도 가능하게 되겠죠.



4 가끔은 의외의 장소에서

조용한 회의실이어야만 집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갑갑한 회의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날이 화창한 날에는 야외에서, 몸이 좀 찌부둥한 수요일엔 서있는 자세로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는 또 다른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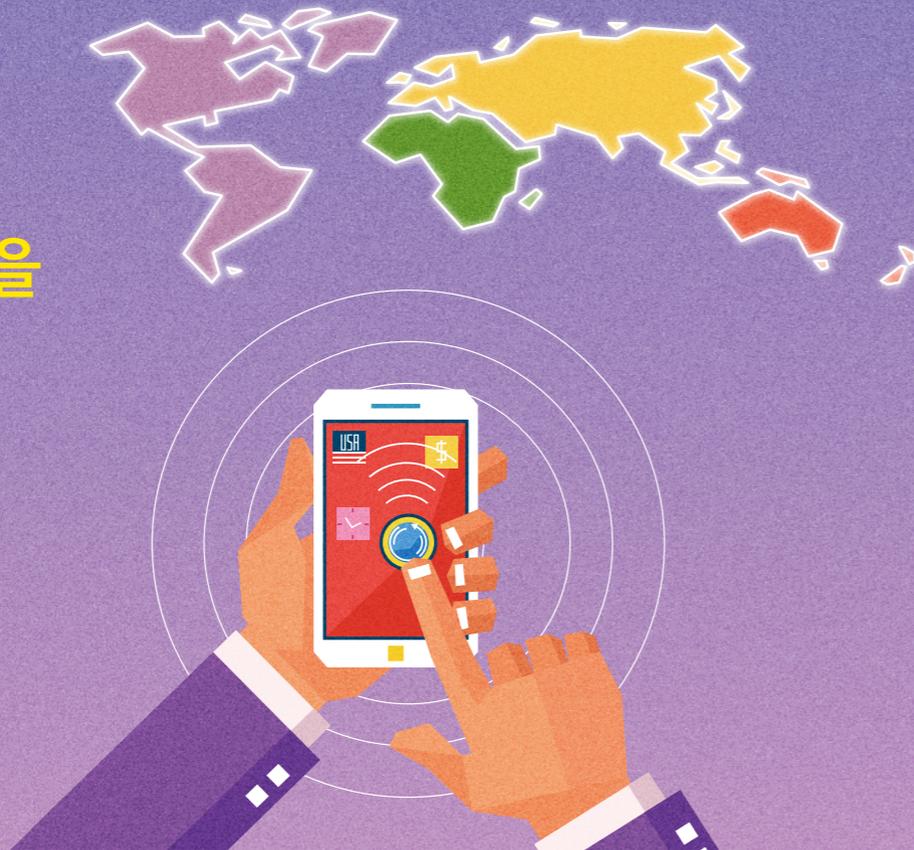




마케팅기획팀
안은경 매니저

IBC에서 가온의 기술력을 전하다

국제방송통신전시회 IBC
2017 현장



지난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유럽 최대의 국제방송통신전시회인 IBC 2017이 개최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 영상 콘텐츠, 방송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위한 최고의 연례행사인 IBC는 그 오래된 역사와 명성만큼 1,700개 이상의 출품자와 58,000명 이상의 참석자를 유치하는 등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행사이다 보니 우리 가온에서도 한 해를 IBC를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로 가득한 현장에서 우리 가온의 기술력을 한껏 선보이고 왔습니다.

Kaon Widely Promotes its Technology at IBC

The IBC 2017, Europe's biggest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was held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from September 15 to 19. The IBC, which has been held since 1967, is an annual event for experts in video contents and broadcasting entertainment from all around the world. Owing to its long history and reputation, over 1,700 experts submitted their works and over 58,000 people visited the convention. To participate in this influential event, Kaon had to devote the entire year to the IBC. As a result, we widely promoted and boasted our advanced technology in the IBC filled with all the new broadcasting trends.



최고, 최선의 자리를 경쟁하다

특히 금번 IBC는 50주년을 맞아 지난해보다 방문객 수도 증가하고, 그만큼 참가 업체들은 더욱 경쟁적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포럼 행사장에서는 페이스북, 구글, HTC, 돌비 등 세계적 IT기업의 강연을 듣기 위해 인파가 몰렸습니다.

총 15개의 전시 홀에서는 다양한 신규 제품들이 선을 보여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우리 가온과 함께 참가한 한국의 여러 기업들은 곧 다가올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세워 5G 기술과 AI로 더욱 경기를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술들을 선보이며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습니다.

Kaon Competes for the Best, Highest Position

As this year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IBC, more people visited the convention than the previous year and participants introduced new technologies and items competitively. A great number of visitors gathered in the forum hall to hear the lectures from leading global IT companies such as Facebook, Google, HTC, and Dolby Laboratories.

In 15 exhibition halls, participants introduced and showed off their new products competitively. Kaon and other Korean companies flaunted 5G and AI technologies to allow watching sporting events more vividly during the PyeongChang 2018. Our advanced technologies attracted the attention of people spanning the entire globe.



인사 Part 천지현 매니저

Thank You Point

소소한 행복을 나눠보세요

Thank you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Thank You Point는 거창한 조직문화 개선이라거나 어떠한 방대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캠페인이라기 보다는, 어쩌면 집보다 더 오래 머무르는 공간에서, 가족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나의 동료들 칭찬해보자는 의미가 더 큰 이벤트입니다.

사실 업무 관련 목적이 아니라도 업무 외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씨가 돋보인다거나, 개인적으로 출장지에서 언어 장벽을 허물어 준 요슬랩프 지니 같은 존재라거나, 사무실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거나, 회사 인근 맛집을 많이 알아서 회식할 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라거나 기타 등등 사소한 이유로도 칭찬을 하자는 것이 이 캠페인의 요점입니다. 사소한 이유로라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하다 보면 더 행복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칭찬인의 덕목

아무래도 업무 공간이다 보니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칭찬이 가장 많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에 빠른 변화가 필요했던 지난 2017년, 비록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성공적인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분께 많은 칭찬이 전달 되었습니다. 그 외 긍정적, 웃는 얼굴, 빠른 대응, 배려 등등의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PART 1

의외의 감동을 선사해요

사실 우리 가온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청결한 사무실을 위해 추운 겨울날에도 새벽같이 출근해 청소해주시는 미화 담당 여사님들, 또 주차부터 보안 유지를 위해 늦은 시간에도 순찰을 도는 등 노력해주시는 보안 담당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칭찬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작은 부분에서도 기억하고 칭찬하려는 가온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PART 2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칭찬에 인색하다고 합니다. IMF를 거치며 빨리빨리 생활에 몰들어버린 나머지 소소한 감동과 감사함을 전하는 방법을 잊고 산 것은 아닌가 싶어요. 칭찬카드 작성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동료가 있다면, 오늘 나를 한번 웃게 한 동료가 있다면, 잠시나마 커피 한잔의 여유를 나눌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동료가 있다면 1층 안내데스크에서 칭찬카드를 찾아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8년에는 칭찬하고 칭찬 받는 가온인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PART 3

한마음 한 뜻으로 전한 온기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 누구에게나 감회가 새롭죠. 지난 2017년을 잘 마무리 했나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때 후회도 남지만 뿌듯한 것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가온은 지난 2017년 뿌듯한 나눔을 해 왔습니다. 임직원들이 각각 작은 마음을 모아 큰 결실을 내는 사회공헌 내용을 알아봅시다.



인사 Part 천지현 매니저



꾸준한 마음을 전해요

- 정기후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임직원들의 모금액이 총 6천만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나누었을 뿐인데, 한 마음이 모이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 후원금은 전부터 우리 가온과 인연을 맺어 온 결연단체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물댄동산,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그 수혜 단체들입니다. 우리 가온과는 특히 청소년 단체가 연이 깊습니다. 돌마초등학교를 비롯 물댄동산, 성남시 청소년 센터 후원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학업 지속을 독려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뿌리가 될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리 잡아 큰 재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통도 나누어요

- 자연재해 후원

올해는 유독 자연재해가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7월 장마철에는 충청북도에서 수해로 인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들에게는 쌀을 전달해 조금이라도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 11월 수능을 1일 앞두고 생긴 포항 지진으로 이례적으로 수능이 미뤄지는 등 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의 길목에서 추위에 떨게 된 포항 이재민들이 집도 잃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가온이 이재민 수용시설에 전자레인지 기부했습니다. 비록 엄마가 해 준 집밥처럼 따스한 밥을 대접할 수는 없어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 육성 사업 지원, 한사랑마을 성인 기저귀 등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 표창도 수여되었는데, 모두 다 조금씩 뜻을 모아 주신 가온인들 덕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2018년 새해맞이의 기쁨보다 추위에 더욱 힘든 이웃이 많을 요즘입니다. 언제나 우리 이웃을 잊지 않고 도움 주고 계신 우리 가온인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2018년에도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는 따스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도시 여행자의 로망

뉴욕, 필라델피아를 다녀오다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의 기억은 특별할 것입니다. 새해 첫 날, 첫 걸음마, 첫사랑 등. 새해를 맞아 특별했던 첫번째 기억을 전해준 가온인이 있습니다. 바로 America 3 Part의 채혜원 매니저인데요, 얼마 전 가온인의 이름표를 달고 처음으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가득한 출장기를 들어볼까요?



America 3 Part 채혜원 매니저



모두에게 열린 미국,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이번 출장은 가온인이 되고 처음으로 가게 된 출장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대가 되고 의미가 남다른 출장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미국 필라델피아, 뉴욕, 그리고 중남미 엘살바도르였습니다. 미국 사업 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구체화 하기 위한 방문으로 3박을 보냈고, 엘살바도르에서는 1박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규모가 큰 비즈니스를 협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방문한 덕분에 곳곳에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반나절 밖에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하고 느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를 위해 만난 분들은 친절했습니다. 인종차별을 한다던가 까칠하다고들 하는 미국인에 대한 소문과는 달리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덕분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첫번째 출장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로망의 도시

이번 출장으로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녔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곳은 펜실베이니아 주 남동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필라델피아입니다. 도시 곳곳이 역사의 흔적이 느껴지는 정교하고 고전적인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 독립역사공원, 자유의 종, 델라웨어 강까지 지나는 곳곳마다 미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볼거리 외에도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장차 방문한 곳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구석 구석 둘러보지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타임스퀘어 42번가에 위치한 브로드웨이 극장가를 방문해 유명 뮤지컬 공연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뉴욕거들처럼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즐겨보는 것도 로망입니다. 센트럴파크는 단순한 공원을 넘어 아이스링크, 동물원, 호수까지 갖춰진 명소이죠. 뉴욕거들의 휴식처에서 나도 뉴욕거처럼 햇빛을 즐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맛과 멋이 흐르는 뉴욕

뉴욕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가온인이 계신다면 굴을 추천 드립니다. 뉴욕에서 굴이러니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뉴욕은 청정 해역과 유통망의 발달 덕분에 싱싱한 해물이 유명해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핫도그 장수만큼 굴 장수가 길거리 곳곳에 흔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 기회가 되어 굴 요리로 유명한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의 'Grand Central Oyster Bar'를 다녀왔는데 뉴욕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굴 요리를 잘 먹지 못하는 저도 굴 마니아로 만들 정도로 맛과 분위기가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굴에 레몬을 조금 짠 후 홀스래디쉬, 핫소스를 곁들여 먹는데, 초장이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니다. 🍷



이불 밖은 위험해!

프로 집순이 집돌이의 집놀이법

“자기계발이 유행이던 적도 있었다. 유행을 따라 출근하지도 않는 주말 아침에도 눈을 떠 지하철에 몸을 실어 강남까지 영어학원을 등록하기도 할 정도로 난 패기가 넘쳤는데... 안가는 날이 더욱 많아지고 더군다나 겨울이 오니 이불을 떠나기가 싫다!” 이런 가온인들이 계신가요? 이런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매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 되시나요? 사실 발전을 위해 자기계발도 필요하지만 하루하루가 힘든 현대인들에게 피곤한 소리이긴 하죠. 오히려 집에서 잘 놀기가 요즘 가장 인기입니다. 연예인 원빈도 집에서 지인들과 게임을 즐기고, 랩퍼 도끼는 집에서 돈다발 세는게 취미라고 하는데, 알찬 집순이, 집돌이 놀이법을 알아봅시다.



1 나도 호텔 같은 집을 가지고 싶은 집순이 | 셀프 인테리어

그동안 구매한 무드등, 러그, 쿠션이 몇 개이던가. 계절 따라, 유행 따라 집의 분위기를 바꾸며 셀프 인테리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나를 위해 최적의 집 상태를 만들어 나의 아지트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셀프인테리어족을 위해 저렴한 조립식 가구를 팔거나 소품을 파는 쇼핑몰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아늑함을 입혀 생활의 안정을 취해보세요.



2 밤을 즐기고 싶지만 나가는 것은 싫은 집돌이 | 스크래치나이트뷰

멋진 야경을 바라보며 맥주 한 잔. 모두에게 피로를 날리는 풍경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 눈 앞에 펼쳐진 야경을 위해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럴 땐 스크래치나이트뷰를 시도해보세요. 여전히 컬러링북이 인기인 중에 서점에서 시꺼먼 도화지의 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도안을 대고 송곳 같은 날카로운 펜으로 쓱 그려대면 아래 밀칠이 등장하며 까만 밤 야경의 그림을 선사합니다. 단순해 보어도 중독성도 장난 아니라고. 한 획 두 획 그어가며 맥주 한 잔 하다 보면 나의 밤도 깊어갈거예요.



3 자격증을 따고 싶은 자기계발형 집순이 | 캘리그래피

아무리 집에서 노는게 좋다 해도 얻는 것 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 집에서 충분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종이 한 장, 펜 한자루 들고 감성 문구를 써 가다 보면 마음 한 가득 감성 채우고, 마음 수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배우러 다니려면 학원도 가야하고 귀찮아지는 것 아니야?! 요즘은 유튜브, 인터넷 강의, 도서들을 통해 독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2-3개월 꾸준히 강의를 들으면서 독학하다 보면 자격증 취득도 어렵지는 않다고. 🍎

칭찬이 메아리 치는 가온

제조관리팀 민동선 매니저가
구매팀 김동규 매니저에게

가온에 칭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Thank you Point 제도부터 연말 연시를 맞아 감사와 칭찬의 인사를 전하게 되는 요즘, 창 밖의 바람은 춥지만 가온인 마음에는 훈풍이 부는 듯 합니다. 칭찬의 말은 메아리가 되어 또 다른 칭찬의 목소리를 만들게 하네요. 이번엔 제조관리팀 민동선 매니저가 칭찬의 메아리를 받아 다음 칭찬인을 소개합니다.



가온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을 마무리하며 재고 실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탓에 늦은 새해 맞이 인사를 지금이나마 지면으로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가온누리를 통해 자재팀 김도형 팀장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멀리 부산에 있는 저희 가족에게도 충실한 가장이라고 칭찬 해 주셨었죠. 사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어서 저 역시도 무심히 생각했던 일인데 그렇게 칭찬을 받고 나니 새해에도 더욱 마음을 새로이 가지고 저를 담금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김도형 팀장님께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할 다음 칭찬 주자는 구매팀의 김동규 매니저입니다. 김 매니저를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주인의식’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가온인들이 회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제가 가까이에서 본 김동규 매니저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 하려는 노력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김동규 매니저 덕분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에 완벽을 기여 하려다 보니 퇴근이 늦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새해에는 본인의 건강도 생각해 오래 오래 가온에서 함께 행복하게 업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조관리팀 민동선 매니저

Hello, everyone. At the beginning of 2018, I went on a business trip for an inventory investigation. So now, I can finally convey to you my New Year's greetings in writing.

“Happy New Year!”

Last Time, Materials Team Leader Kim Do-hyeong complimented me through Kaon Nuri. He said that I am a hard working person and a devoted father and husband to my distant family living in Busan. In fact, this is one my primary responsibilities so I've never really given much thought about it deeply. After I received the compliment, I was newly resolute that I would become a better person in the New Year. I would like to appreciate Team Leader Kim Do-hyeong once again for paying me a compliment.

Today, I would like to give an accolade to Purchasing Team Manager Kim Dong-gyu. I really respect him for his “sense of ownership”. Of course, all Kaon employees are working hard with a sense of ownership. However, Manager Kim Dong-gyu is someone who always does his best to seek perfection in his job. Thanks to him, our production process always goes smoothly without any problems. Because of his perfectionism, he often works overtime. In the New Year, I hope he focuses more on his health so that we could work together for a long time to come. ☺

Manufacturing Management Team Manager Min Dong-seon

펫티켓을 알려줄개!

반려견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둘 것들



반려견 문제는 육아 문제만큼이나 예민하고 중요합니다. 예전부터 강아지들은 집안의 막내이자 엄마의 아가이고 딸내미의 동생으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요즘은 사람보다 대우받는 반려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애완견'이란 말 자체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더이상 사랑스럽게 같이 노는 '애완견'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어엿한 가족인 '반려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로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걸까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반려견 문제가 뜨겁습니다. 풀어놓은 대형견에 초등학생이 쫓겨 물리는 사고, 20대 여성이 시바견에게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맨 사건, 한 유명 식당 대표가 연예인의 개에게 물려 잇새만에 숨진 사건 등이 연달아 일어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반려인들은 길에서 개와 마주치면 긴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건이 연일 보도되자 평소 개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도 주인이 줄을 잡았지만 입마개가 없는 개를 마주치면 '아, 저런 개가 지금 갑자기 나에게 달려든다면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사고가 나는 거겠구나. 그게 내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새삼 두려움이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일부 비반려인들은 "사람을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견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반면 반려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20대 여성이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행인에게 뺨을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개를 만지겠다고 다가오거나 자극하는 등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도 토로합니다. 반려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중대형견주들은 특히 눈치가 보여 산책 한번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이해하고 함께해요. 반려견이 주는 사랑과 위로는 소중하니까요!



가족의 눈에는 한 없이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절대 안 무는 개'이지만,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습니다. 모든 개는 잠재적으로 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견주에게도 반려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산책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서로에게 에티켓을 지키는 것.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펫티켓을 잘 지켜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 아닐까요?



외출하기 전, 꼭 지켜주개



- 1 반려동물 등록제**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되었으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인식 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외출시 있을 수 있는 실종 사고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접종**

예방 접종은 자신의 반려견과 외출시 만나는 다른 반려견들 그리고 사람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만약에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견병 예방 주사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3 목줄/가슴줄은 반드시 착용**

공원에서 나의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언제든 돌발적으로 뛰어가거나 다른 반려견, 견주에게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목줄이나 가슴줄은 나의 반려견을 담당하게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 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 4 산책로에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리드줄을 짧게**

요즘 날씨 좋은 주말 공원에 가 보면 공원의 1/3은 아이들, 1/3은 반려견들 그리고 나머지 1/3은 그들의 보호자들입니다. 사람들과 다른 반려견이 함께 걷는 산책로나 공원에서는 리드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목적이 있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반려견도 발을 밟히는 등의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요.
- 5 맹견이라면 입마개도 필수**

동물보호법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 5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입니다. 순할 땐 한없이 순하겠지만 공격성을 드러냈을 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므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며 이 외에도 공격성이 있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흥분할 수 있다면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 6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캐리어에**

2014년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백화점에서 반려견을 손가방에 넣어 미용실에 데리고 갔다가 반려견이 미용실 직원을 물어 치료비 27만원과 위자료 250만원 등 총 277만원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탈 때에는 반려견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캐리어에 넣어야 합니다.
- 7 아이들이 다가온다면 먼저 경고를**

아이들은 반려견을 보면 "멍멍이~"하고 달려오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귀여운 강아지이지만 반려견이 경계가 심하다면, 먼저 "만지지 말라"고 경고를 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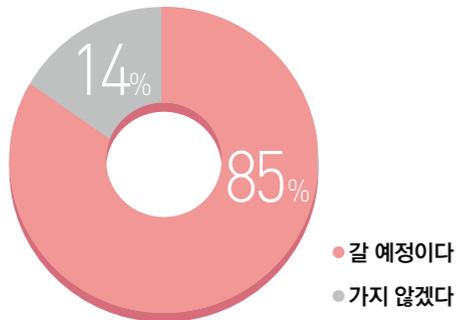
가온인의 설 명절, 행복하십니까?

가온인의 설 명절, 행복하십니까? 어릴 때는 세뱃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설날이 기다려졌는데 요즘들어 좋을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가온인들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친척들 눈치 보라, 돈은 돈대로 쓸 곳이 많고, 제사 음식은 왜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은 머느리까지! 설 명절, 우리는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볼까요.

* 124명의 가온인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1 명절에 집에 갈 계획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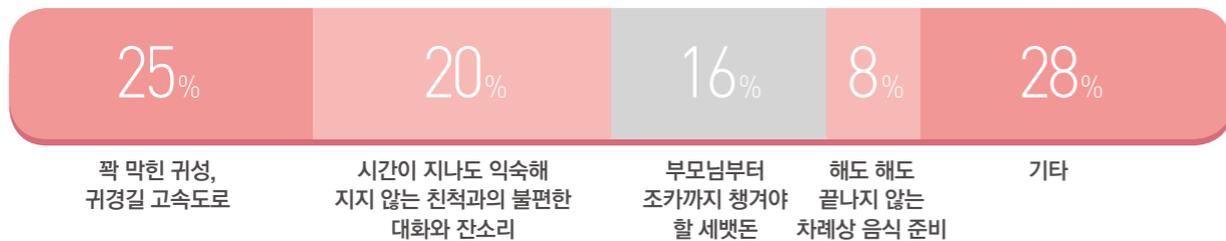


2 설 연휴, 무엇을 하고 보낼 계획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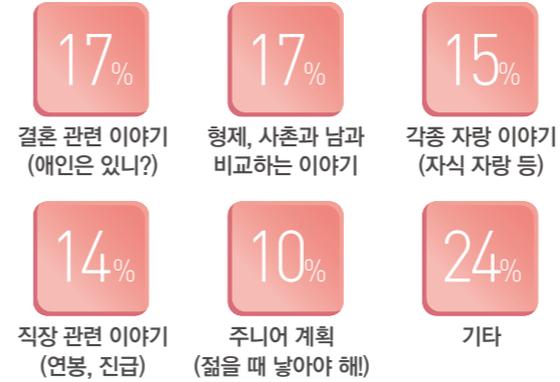


대부분의 가온인들은 명절에 집에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에는 아무래도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가장 큰 일이겠죠.

3 나에게 가장 명절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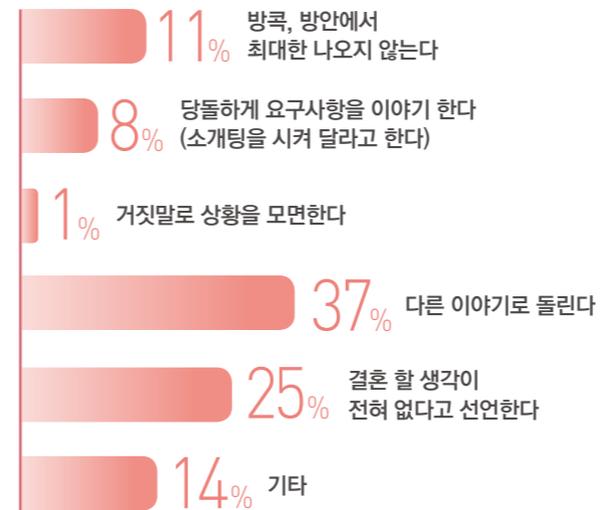


4 설날, 가족과 모인 자리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귀성길 고속도로는 도로가 아니죠. 주차장이죠. 아이까지 있다면 애들은 지루하다고 보채고 막힌 차들의 끝은 보이질 않고...가온인들은 명절의 가장 큰 스트레스로 귀성, 귀경길 고속도로를 꼽았습니다. 바로 뒤를 잇는 것으로는 친척과 어른들의 잔소리인데요. 비교, 결혼, 자랑, 직장, 2세 계획 등 단골 잔소리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모두 듣기 싫은 말이라고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5 명절,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피하는 방법은?



6 우리 집 명절 풍경을 떠올려보면 남녀의 가사 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도 그나마 명절의 남녀가사 부담이 50%는 된다고 생각하는 가온인이 38%로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사우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했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명절에 발생하는 수많은 집안일들, 서로서로 도와서 함께 해 주세요~

7 명절 스트레스가 있어도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고속도로는 막히고 어른들 잔소리도 싫지만 그래도 명절은 기다려지고 가족들은 반갑습니다. 며칠씩 붙어 있는 빨간날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다려지죠. 이번 설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서Part 장지원 매니저

외할머니의 팔순 길목을

지켜보며

외갓집, 외할머니 등의 단어가 주는 느낌은 포근함도 있지만 유달리 마음 한 편이 짠~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여물 가마솥에 김이 오르고, 새벽 이슬 앉은 길 나즈막한 사립문을 열면 보이는 오도카니 앉아있던 외할머니 굽은 등. 기억하는 외갓집 풍경은 따스하면서도 그리움이 그려지죠. 언제나 그리운 마음을 담아 외할머니의 팔순을 앞두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외할머니 최해화 여사님,
독감에 걸려 꼼짝도 못하신다고 들었는데 병원은 좀 다니셨는지요? 새해 맞이를 호되게 하고 계신 요즘인 것 같네요.
20살 대학에 갓 입학할 때, 요즘 여대생들은 차 한대는 몰고 다녀야 한다며 “외할미가 한 천만원 주면 티코 하나 살 수 있나?”하시던게 생각납니다. 이제는 ‘티코’가 단종 되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는 세상 물정은 모르지만 외손녀한테 돈 천만원 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었겠지요. 티코는 못샀지만 물심양면으로 저를 보살펴주셨어요. 하지만 외할머니께 돌려드린 것은 별 것 없었네요. 간혹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동남아 과일이라도 사다 드리면 “영감은 일찍 가버려서 이런 과일도 못먹고, 나는 오래 사니 묘한 동남아 과일도 먹으니 오래 사는게 좋긴 좋대!”며 좋아하셨죠. 지금처럼 오래 오래 살아 주시면 동남아 과일도 많이 사드리고 더 좋은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하루는 엄마와 발톱에 반짝이 매니큐어를 바르다 외할머니 발톱에도 발라드리겠다고 하니 발이 못생겨서 소용 없다고 한사코 거절을 하셨죠. 정말 발 뒷꿈치가 가뭇의 눈처럼 갈라져 거칠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과수원 밭에서 고생을 하다보니 그 시간만큼 발도 거칠어져 어떤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더라는 말에 숙연해 졌습니다. 저는 80년의 시간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된 세월인지, 또 외할머니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밭에 새겨진 깊은 골과 두터워진 굳은살을 보며 외할머니가 밝아온 역경의 세월이 거칠었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다가올 여름이면 외할머니는 팔순이 됩니다. 팔순 잔치는 원래 주위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 의식을 지내는 것이라며, 외할머니 인생에는 자식들이 순탄히 살아준 덕분에 팔순을 맞아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외할머니 돌봄 덕분이었는데 말이지요. 이제는 외할머니도 거칠어진 외할머니의 발을 돌보며 고운 80대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행복 드리는 외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외손녀가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사랑해요.



새해, 이 곳이 다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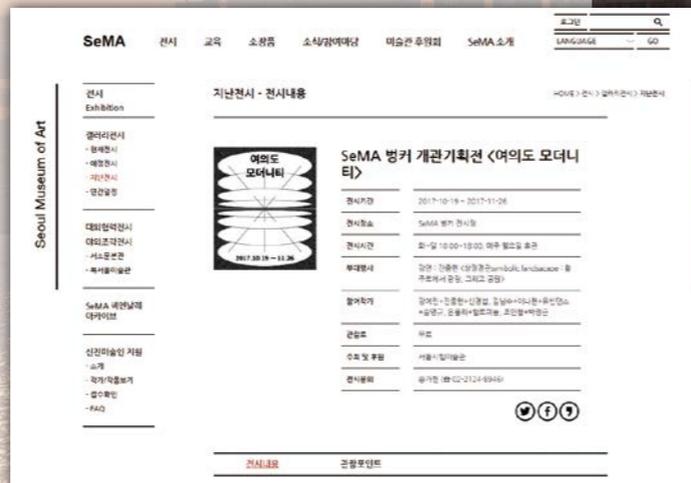
자세히 보면 더 매력적인 서울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것들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또 다른 멋이 느껴지기도 하죠. 여기 새해 새 마음으로 돌아보면 새롭게 보일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이 곳들 모두 다 '재활용'으로 이루어진 장소라는 것! 신상 같지만 신상 같지 않은 핫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은밀한 공간이 주는 묘한 느낌 SeMA지하벙커

여의도에서 지하 비밀 벙커가 발견되어 떠들썩 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경호를 위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공간은 발견 당시에는 20평 남짓한 방과 180평의 넓은 공간이 모두 물이 차 축축한 방이었지만 'SeMA 벙커'라는 이름으로 복원되어 전시관으로 새로 단장했습니다. 지하 벙커인 만큼 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넓은 홀의 의외의 장소가 나오는데, 갤러리로 꾸며져 다양한 문화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대통령이 사용했을 것 같은 샤워장, 소파 등을 함께 볼 수 있어 이색적인 느낌을 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 내용을 확인해 방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재활용? 새활용! 새활용플라자

지난 9월 개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시민에게 새활용을 알리고 새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관된 건물입니다. 새활용은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사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와 지상 총 7층 규모의 건물 안에는 새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새활용 디자인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강의 또는 공예 원데이 클래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설사와 함께 하는 투어도 있으니 자원을 아끼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성동구 용답도 249-35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둘러보아요 한강 함상공원

일단 이 곳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간단히 묵념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명예롭게 퇴역한 우리 군 함정들이 시민을 위한 체험 전시관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퇴역함정 호위함, 고속정(참수리호), 잠수함(돌고래) 세 척이 체험형 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열립니다. 고속정의 업무 공간을 체험할 수 있고, 해군의 생활 공간을 보존해 우리 군의 위상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활동 등을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젖줄이라는 한강 위에서 그 역사를 함께 한 함정이 시민의 체험 문화 공간으로 다시금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마포구 마포나룻길 407 망원한강공원 리틀야구장 옆





올로에서 짠테크까지



나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 소비 트렌드는 어디에 있을까

요즘 각종 SNS와 TV 등의 매체를 보고 있으면, 약간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분명 얼마 전까지는 여기에서도 올로, 저기에서도 올로, 다들 'You Only Live Once'를 외쳤는데 순식간에 '짠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 느낌입니다. 얼핏 보기엔 한번 뿐인 인생을 아쉬움 없이 누리자는 올로와 김생민이 선두에 서 돈은 안 쓰는 것이라고 외치는 짠테크는 정 반대의 주장 같은데 이 둘은 거의 공존하다시피 우리 삶 속에 침투했습니다.

+ 즐겨라 나 자신을 위해서, 느껴라 다시 이 순간이 오지 않으니

작년에 올로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편에서 꽃보다 청춘 일행은 홀로 자동차를 타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여대생을 만나자 멋지다고 인사를 건넵니다. 여대생은 류준열에게 '올로'라고 답하고 그의 휴대폰에 'You Only Live Once'라고 적어줍니다.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를 홍보하는 영상에서 "올로 맨"이라고 외치면서 이 줄임말은 세계적인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던 여대생이 말한 올로, 오바마가 외친 올로는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올로족들은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계발과 관련된 것에 아낌 없는 소비를 합니다. 열풍이 불었고 아직도 다 식지 않은 먹방도 역시 이런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적은 돈을 저축 하는 것 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다니는 삶을 선호하는 추세인 것이죠. 하지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와 같은 총동적 소비와는 또 다릅니다. 올로의 가장 큰 특징은 비물질적 소비인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기에 위시리스트가 아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워나갑니다. 경험을 위한 소비의 대표적인 것이 여행이죠. 비싼 명품백을 사기 보다는 적금을 해지해서라도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신혼여행으로 자전거여행에 도전하고 집 대신 온 가족이 버스를 개조해 떠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형 올로, 본질은 버리고 소비만 취한 느낌



한국에서의 올로는 위에서의 올로와 조금 다릅니다. 올로족의 소비는 단순한 물욕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는' 수준이 아닌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총동구매와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형 올로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불안감이 팽배한 사회현상, 현대인의 스트레스,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 등과 맞물려 변질되었습니다. 삶의 질과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아닌, 안정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보상으로 올로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올로는 마케팅 용어가 되어버렸고 올로 행, 올로 인테리어, 올로 여행 등 여기 저기에 다 올로를 붙이고 있습니다. 너무 흔하게 쓰이는 것에 더해 무리한 일상을 버리고 단숨에 떠난다는 의미만이 강하게 남은 것입니다.

+ 올로 돌풍 속에 통장 요정이 우뚝 서다



나날이 새로운 것이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올로는 이미 너무 많이 써먹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올로라고 하면 뭔가 있어보이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 기분은 거의 사라졌죠. 사람들이 지겨워할 때쯤, 김생민이 통장을 부여주고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일 것 같은 올로와 김생민 사이에는 불확실한 미래, 고용불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등 우리가 직면한 부정적인 상황을 직설적이고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올로를 통해 얻는 달콤한 위안의 효과도 약발이 떨어져가면서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 상황에 잠시 쓴 맛을 잊게 해 주는 사랑일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김생민의 하루는 연예인이라기 보다는 직장인에 가까웠습니다. '첵 바퀴 돌듯'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고 짠내나게 절약한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대중들을 위로합니다. 올로에 질린 사람들은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이 그래도 내 미래를 조금이라도 지켜준다는 주장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 올로나 김생민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김생민은 김숙의 집에서 탄산수를 한 모금 마시고 흔들리는 동공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이란 행사장에서 주는 생수가 전부였으니까요. 이제까지 가족과 해외여행은 패키지만 가 봤다고 합니다. 에어비엔비라니, 김생민에게는 그동안 멀고도 먼 이야기였겠죠. 이런 김생민의 삶은 과연 옳을까요? 한 TV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결국 하고 싶은게 뭐냐"는 질문에 김생민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로도 김생민도 옳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하겠죠. 무조건 나에게 보상을 하는게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사느라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시간을 들여 깊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위한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이, 말로 하기엔 쉽지만 실천은 가장 어려운 정답일 것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번 뿐입니다. 후회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덜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의 의논과 타협을 끊임없이 해 보길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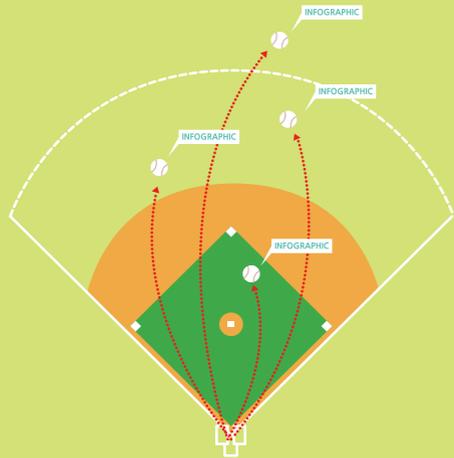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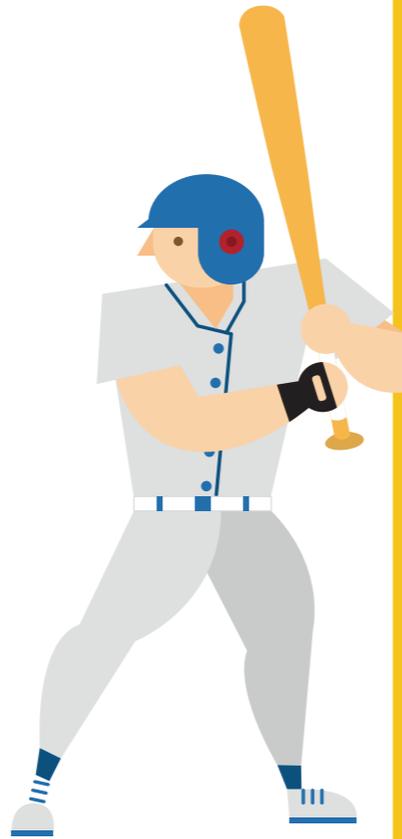


SQA Part 김효현 매니저

나의 YOLO, 야구와 함께 스트레스도 날려요

가온인이 소개하는 나만의 YOLO

너도 나도 YOLO(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번 뿐)를 외칩니다. 더 이전을 생각해보면 그 유명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1989년)'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한, 그 유명한 대사 '카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과 어느 부분 겹치는 말이죠. 다양한 옴로 스타일이 유행했지만,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걸 포기하고 현재만을 위해 즐기며 사는 옴로를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옴로가 별거 인가요? 우리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만끽하면 그게 진정한 옴로 아닐까요? <가온누리>에서는 가온인이 즐기는 나만의 옴로를 만나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 드라마틱하게 시작된 우리의 운명

제가 야구를 시작한 것은 조금 드라마틱한 우연에서 시작합니다.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고, 밥을 먹고 있는 중 어디선가 갑자기 야구공이 날아 왔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그 공을 맞지 않고 바로 캐치해냈는데, 그 우연이 대학교 야구부 동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던져준 장난 볼에 저는 10년의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사회인 야구부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야구공과 함께 스트레스를 던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옴로(YOLO) 라이프를 살고자 하죠. 한번뿐인 인생 재미나게, 또는 멋있게 살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옴로 라이프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현대인이고, 직장인이라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이럴 때 저는 야구를 하며 옴로 라이프를 실현하곤 합니다. 야구의 장점은 스트레스를 단 시간에 확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에 활력을 주고, 덕아웃에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끝 없는 매력을 가진 스포츠, 야구

또 야구 역시 경쟁이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겼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습니다. 야구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스포츠입니다. 상대 투수의 공을 안타로 연결할 때의 손 맛, 4번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투수의 영민함, 강한 타구와 빠른 공을 잡아내는 내야수의 짜릿함 등이 대표적인 매력이지요.

야구는 직접 뛰는 것도 재미지만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경기 중계와 함께 시원한 맥주가 같이 한다면 그것도 하루 피로를 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매력들에 빠져 지난 10년을 야구와 함께 주말을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번 시즌 목표는 제가 속한 사회인 야구팀의 우승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야구에 미쳐 있을 것 같습니다. 🏆





QA Part 김정진 매니저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가온인 여러분 모두 각자 다양한 취미 활동 즐기고 계신지요? 운동, 독서, 영화 관람 등 많은 취미가 있지만 저는 그 중 '호른'이라는 금관악기 연주를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호른은 오케스트라의 수십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대학에서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통해 호른을 시작하게 되었고, 군악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클래식에 매료되어 현재 직장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빈펠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서울시립 교향악단 등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겁니다. 많은 오케스트라가 하루에도 수많은 클래식 공연을 열고 있는데 우리에게 클래식은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몇가지 이유를 들면 우선 가사 없이 음정과 박자 뿐인 연주에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또 큰 돈을 내고 입장한 청중들은 맘대로 기침, 잡담도 못하고 악장 사이 박수를 쳐서도 안되며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관람해야 할 것 같은 고상하고 지루한 장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익숙하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들리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환경 미화차 후진 소리에 들리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도 모두 클래식입니다. 올 겨울 평창에서 열릴 동계 올림픽때는 피겨선수의 아름다운 몸짓에도 클래식이 흐르고, 흔히 보는 TV 속 광고 BGM도 클래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인다면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클래식의 리듬은 뇌신경을 자극해 잠재적인 능력을 깨워 자녀의 뇌를 긍정적으로 발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흥분되고 복잡한 마음일 때 뇌에 알파파를 일으켜 차분해지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잠 자기 전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잘 때는 좀 더 활기 찬 기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가온은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즐기기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약 20분정도 걸어가면 성남 아트센터를 찾을 수 있는데 비싼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휘자 금난새 선생님의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월 28일에는 150회 정기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시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마지막으로 겨울에 듣기 좋은 클래식을 추천 드립니다.

- 쇼팽 Etude Op.25 No.11 겨울바람
- 차이코프스키 Symphony No.5 2악장. Andante Cantabile, con AlgunaLicenza
- 베토벤 Symphony No.5 '운명' 1악장. Allegro con brio



영업지원 Part **문윤서** 매니저

엄마를 위해 만든 정성 가득 요리

의외로 간단하고 맛있는 찜닭 레시피

가운인 여러분들께 지난 크리스마스 엄마를 위해 만들어 본 요리 레시피를 공유해드립니다. 연휴를 맞아 가족들이 모두 쉬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찜닭을 드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엔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린 음식을 드시고 싶었구나' 생각해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재료 손질 닭 한마리, 청주 또는 소주 약간, 양파, 대파, 청양고추, 마늘, 파프리카, 감자, 당근, 모짜렐라치즈, 당면

양념 간장 1/2컵, 물 약간, 물엿 또는 설탕, 후추, 미림 약간, 굴소스 2T, 다진 마늘 2T, 다진 양파 2T



1 닭은 깨끗이 씻어 핏물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당면, 채소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합니다.



2 양념 재료를 모두 섞어 냉장고에서 숙성하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3 당근과 감자 같은 단단한 재료는 먼저 살짝 삶아두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냄비에 물을 자작하게 넣어 닭을 삶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기름을 제거하여야 닭의 잡내 없이 맛있는 찜닭이 됩니다.



5 삶은 닭을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군 후 만들어 둔 소스를 부어 졸입니다. 양념이 고루 배이도록 중간중간 소스를 끼얹으며 졸여줍니다.



6 준비한 채소와 감자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이 때 채소가 부서지거나 식감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7 불려둔 당면을 넣고 약간의 물을 부어 농도를 조절해주세요.



8 마지막으로 치즈를 뿌리고 치즈가 녹으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찜닭은 요리 실력이 필요한 음식 같이 보이지만 시간과 정성만 준비 된다면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요리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짜렐라치즈를 추가해 이색적인 맛을 더해보았어요. 기호에 따라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명절에 가족들을 위해서 시도해보시는게 어떨까요? ☺



Tel +82 31 724 8500 Fax +81 31 724 8999 www.facebook.com/kaonmedia
KAONMEDIA bldg, 884-3, Seongnam-dae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17, Republic of Korea
www.kaonmedia.co.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다양한 KAON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